

은행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미국 은행권 '23.1Q 실적 호조
-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동반 개선
- 은행권 리스크 완화 국면. 국내 은행 실적 모멘텀은 다소 약할 듯

미국 은행권 1Q 실적리뷰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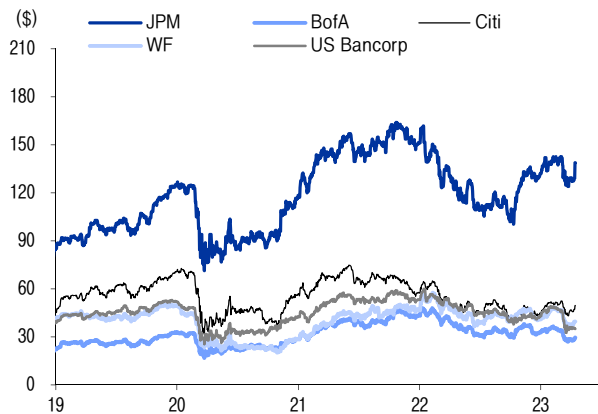
미국 은행권 1Q 실적 호조

- ▶ 지난 금요일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3개 주요 상업은행(JP모건, 씨티, 웰스파고)의 2023년 1분기 합산순이익은 1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전분기 대비로는 36% 증가하며 호실적 시현. 세 은행 모두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특히 JP모건의 경우 순이익이 126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2% 급증하며 주가가 7.6%나 상승
- ▶ 큰 폭의 이자이익 증가가 실적호조를 견인. 금리인상에 따른 순이자마진 상승으로 3개 은행의 합산 이자이익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39.5%나 증가했음
- ▶ 수수료이익을 포함한 비이자이익의 경우 전년동기와는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3~4분기 대비로는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이익 증가에 기여. 3개 은행의 비이자이익 규모는(판관비 포함) 22년 4분기 대비 평균 30억달러 가량 확대됨. 시장금리 하락과 주가지수 변동으로 인한 우호적 금융시장 환경이 유가증권 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손익개선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 대손비용은 3개 은행 합산 55억 달러로 전분기(51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는 환입효과가 소멸되면서 대손비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3개 은행 평균 대손비용률은 82bp이며 씨티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00bp를 상회. 향후에도 고금리 여파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대손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 3개 은행의 1분기 평균 ROE(연환산)은 12.3%로 고수익성이 유지되고 있음. 특히 JP모건의 경우 이익호조로 ROE가 17%에 달함. 한편 대출 및 총자산 증가율은 둔화되는 가운데 레버리지 상승이 억제되면서서 보통주자본비율은 지속 상승하는 모습

금융시스템 리스크 안정으로 국내외 은행주 반등 국면. 국내 은행권 실적 모멘텀은 약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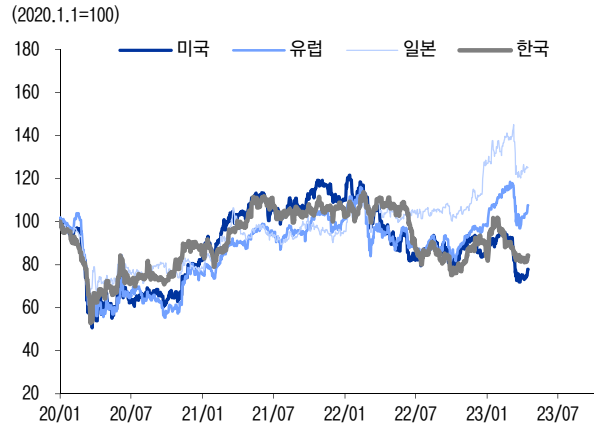
- ▶ 미국 은행주 주가는 SVB 파산 및 중소형 은행 뱅크런 우려에 따른 하락 분을 만회 중. 유동성 리스크가 일부 소형 은행에 국한되고 미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이며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음. 미 대형은행이 호실적 시현으로 양호한 펀더멘털이 확인되면서 주가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이는 국내 은행주에도 동일하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 ▶ 다만 1분기 국내 은행권 실적의 경우 순이자마진이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대출증가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건전성 지표 또한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은행권에 비해 실적 모멘텀은 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그림1 미국 주요은행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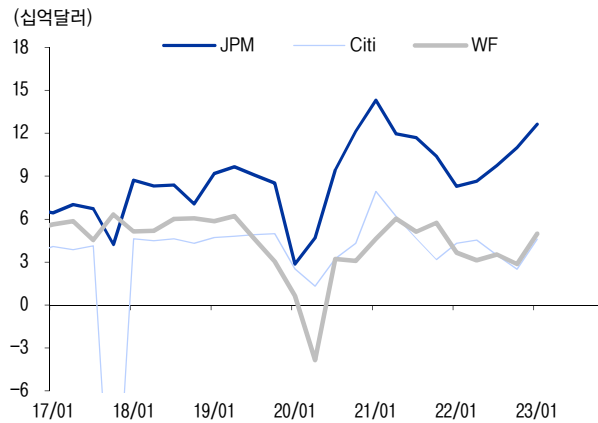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국 은행업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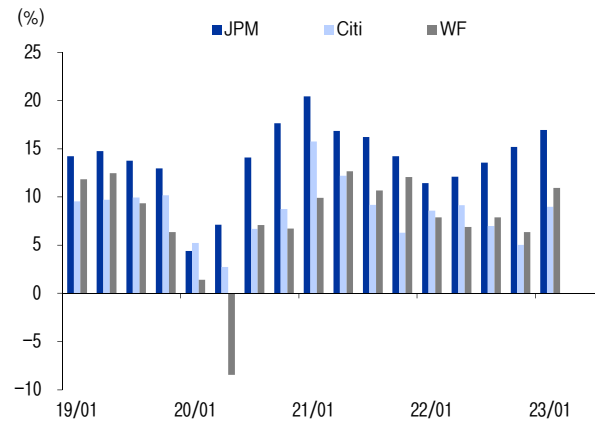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주요은행 분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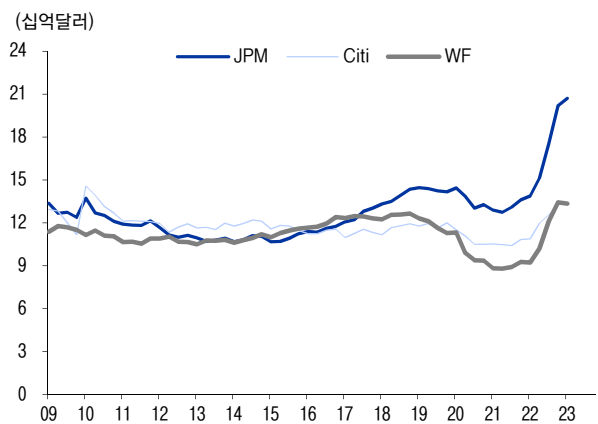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주요은행 분기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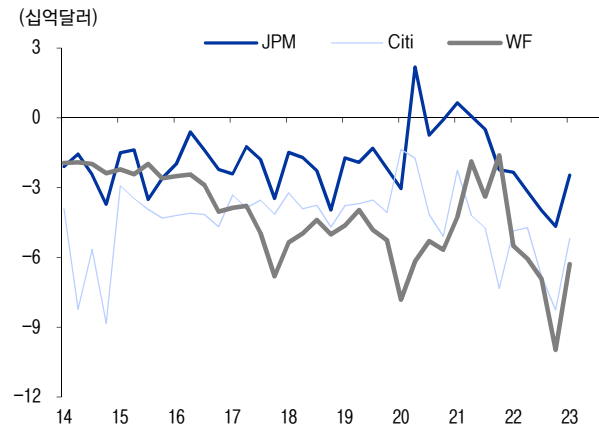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미국 주요은행 이자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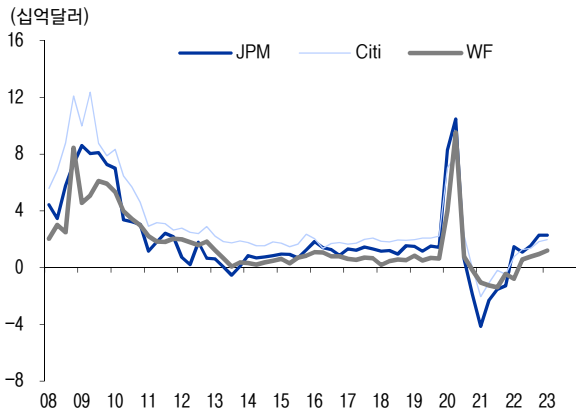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주요은행 비이자이익 추이(판관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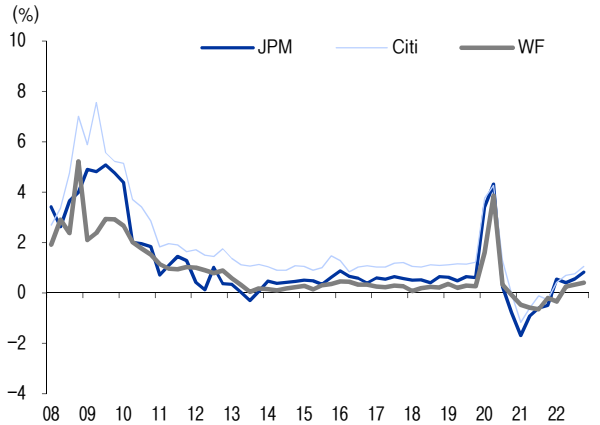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주요은행 대손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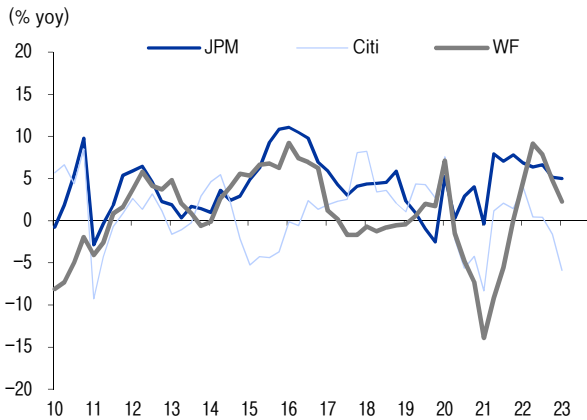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미국 주요은행 대손비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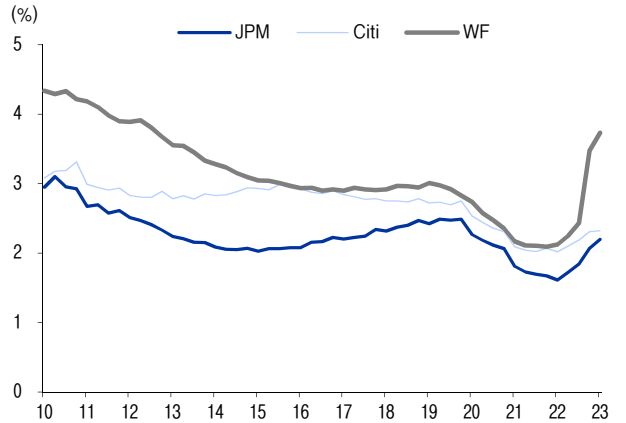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주요은행 대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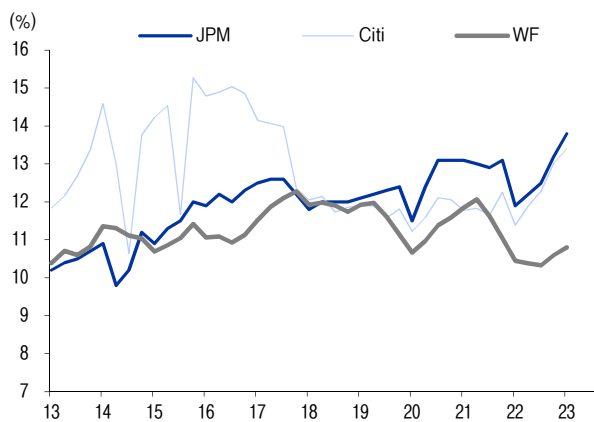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미국 주요은행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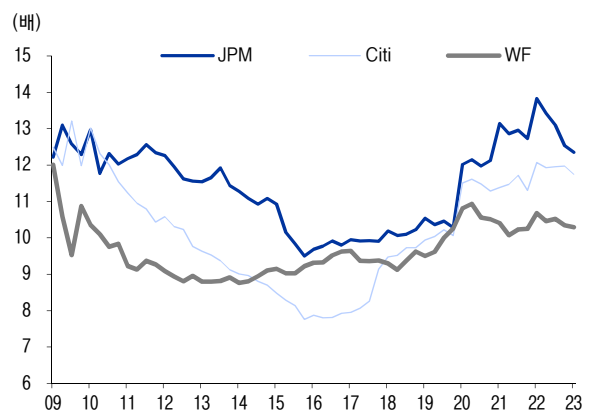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미국 주요은행 보통주자본비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미국 주요은행 레버리지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3% 8.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4. 1 ~ 2023.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